

최근 문학번역이론의 흐름과 번역비평의 나아갈 길

- 언어학적 입장에서의 고찰 -

심재기(콘스탄츠대 박사과정)

0.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문학번역이론의 흐름을 조망해 보고 실제 문학번역작업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번역비평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문학작품은 번역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의역이 적합한가 아니면 직역이 더 나은가, 번역을 원작처럼 읽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번역은 번역으로 읽혀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키케로(Cicero) 이래 히로니무스(Hieronymus), 루터(Luther), 하만(Hamann), 괴테(Goethe),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훔볼트(Humboldt)를 거쳐 금세기에 이르러서는 벤야민(W. Benjamin), 하이데거(Heidegger),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 등에 이르기까지 이천년간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¹⁾ 그러나, 문학번역의 문제가 과학적 접근의 초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의 번역이론의 바탕이 되는 60년대의 번역이론을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 문학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두 입장의 최근 십여년간의 연구경향을 개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번역문화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번역비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대표적인 두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학제간

1) Störig 197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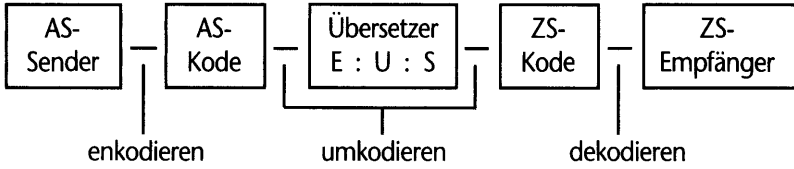
의 공동연구(interdisziplinäre Zusammenarbeit)의 성격을 띤 번역비평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I. 번역이론의 최근동향

1. 언어학 중심의 번역학과 문예학 중심의 번역연구 사이의 괴리

문학작품의 번역이라는 연구대상은 그 성격상 대체로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바, 언어학과 문예학이 바로 그것이다. 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이론은 번역에 있어서 가변적인 요인들을 가능한 한 모두 배제하여 번역과정의 규칙성을 밝혀내고 연구결과를 객관화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1960년대의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는 문학번역의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문학번역은 그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당시의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진영에서는 예술적 기준 및 개별적 특성과 같은 문학번역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결코 언어학적인 방법론으로써는 연구될 수 없으며, 오로지 문예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진영의 대표격인 오토 카데(Otto Kade)와 롤프 클뤼퍼(Rolf Klopfer)의 견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60년대에 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이론을 확립시키는 데에 공헌한 카데는 라이프치히 번역학 학파의 창립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번역의 규칙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규명하기 위해 카데는 소통이론적·언어학적 측면에서 출발한다. 그의 소통이론의 기본구도에서는 기호발신자(Sender)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기호체계(Kode)에 적합하게 기호화(enkodieren/verschlüsseln)시켜 보내면 수신자(Empfänger)가 기호를 해독(dekodieren/entschlüsseln)하여 전달내용을 파악한다. 카데는 번역을 소통의 한 특이한 경우로, 즉 두 언어로 이루어지는 소통과정으로 고찰한다. 일반적인 소통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하나의 공통된 기호체계를 사용하는 반면, 두 언어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발신자와 공통된 기호체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1)과 같이 번역자가 기호전환(umkodieren/umschlüsseln)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표(1) Kommunikationstheoretisches Übersetzungsmodell von Kade

번역과정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카데는 번역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요소, 즉 가변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이론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번역과정의 고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로서는 원어텍스트, 발신자, 번역자, 수신자 각각의 개별적인 요인들인데, 예컨대 원어텍스트가 장황하게 혹은 불분명하게 쓰여졌다거나, 수신자의 교육수준이 낮아서 전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카데에 의하면 이러한 가변적인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나면 궁극적으로 번역의 <이상적인 상황>(Idealsituation des Übersetzens)에 도달하게 되고, 비로소 <기호전환>(Umkodieren)의 문제가 번역과정의 핵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Kade 1968:6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하여 카데는 형식을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내용에 우위를 둔다. 물론 카데가 내용과 형식의 상호연관관계를 누누히 강조하고 있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내용이 불변적인 것이고 형식은 내용에 종속되어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에 원어텍스트와 번역텍스트는 동일한 내용을 갖지만, 두 개의 상이한 형식을 지닌다는 것이다. 번역의 과제는 따라서 기호전환과정에서 원어텍스트의 전달내용을 <불변적인 것>(Invariante)으로 보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데는 번역의 근본문제를 전적으로 언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²⁾

2) Kade 1968:75 참조. 카데에 의하면 원어의 문화에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번역어의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번역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도 부연하여 풀어쓰거나, 신조어나 부득이한 경우 차용외래어를 사용하여 원어표현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카데의 이론이 전적으로 내용의 측면,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차적 의미(Denotation)³⁾차원에 국한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일차적 의미차원을 벗어나는 의미의 측면들, 즉 형식적·예술적 의미차원은 그의 이론에서 제외된다. 카데는 번역의 종류를 크게 문학번역과 실용적 번역으로 구분하는 바, 전자는 말 그대로 문학텍스트의 번역을 일컫고, 후자는 학문, 기술, 법률, 상업 등의 모든 양태의(문학외적)실용텍스트의 번역을 포괄한다.(Kade 1968:45) 카데의 번역모델에서 텍스트의 표현형식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용적 번역에서 번역어의 표현형식은 오로지 원어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인 반면에, 문학번역에서 형식요소는 원어텍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내용을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기능을 지닌다.(Kade 1968:47) 문학번역은 직관, 예술적 재능 등의 <우연적> 요인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이러한 특수성이 문학번역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에 문학번역은 카데의 이론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문학번역은 카데뿐만 아니라 야콥슨(Jakobson)(1959:238), 움펠트(Jumpelt)(1961:26), 하우스(House)(1977: 67ff.) 그리고 또한 콜러(Koller)(1983:88/104)를 위시한 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이론가들의 연구대상에서 완전히 혹은 유보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번역이론에 <다른 것 속에 같은 것(상이성 내의 등가관계)>(equivalence in difference)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도입한 야콥슨은 문학텍스트에서는 통사적, 형태적 요소들도 각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문학은 본질상 번역이 불가능하며 단지 <창조적인 치환>(creative transposition)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Jakobson 1959: 238) 하우스도 문학텍스트에 있어서 언어단위들의 <형식>(form)이 언어단위들의 <의미>(meaning)로부터 분리될 수 없거니와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풀어쓰거나(paraphrase) 설명이나 신조어 등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근거로 문학텍스트의 번역을 자신의 모델에서 배제하고 있다.(House 1977:67ff.)

3) <Denotation>의 개념은 이 용어의 사용문맥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바, 첫째로 <Konnotation>과 대립적인 의미로서 발화상황 및 문맥과 무관하게 하나의 언어표현이 지니는 기본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밤>이라는 표현의 Denotation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어학 중심의 번역이론내에서 카데의 모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높다. 이를테면 빌스(Wilss)는 카데가 등가관계(Äquivalenz)의 문제를 일차적 의미차원에 국한시킨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Wilss 1977:178) 잘레프스키(Salevsky)는 카데의 모델에서는 이상적인 번역상황의 이상적인 번역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번역자의 역할과 번역행위 자체는 거의 참작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Salevsky 1986:16)

카데의 이론을 비롯한 언어학적 번역학은 문예학에 입각한 번역연구진영으로부터 일반적으로 <reduktionistisch>하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성향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까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학중심의 번역학자들의 시각이 단지 내용의 차원에 국한되어있고 문학텍스트의 번역이 언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의 다양한 복잡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학적 번역이론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클뤼퍼는 문학번역은 오로지 문예학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언어의 <개별성>(Individualität)과 <보편성>(Allgemeinheit/Universalität)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여 문학의 언어는 - 소쉬르(Saussure)의 개념에 따르면 - <언어체계>(langue)가 아니라 <개별적 언어사용>(parole)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언어의 보편적 측면을 다루는 현대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이론에

<일물에서부터 다음 일출까지의 시간>인 반면, 이 표현의 Konnotation은 그 발화상황 및 문맥에 따라<적적함>, <무서움>, <낭만적> 등등의 부차적 의미를 가리킨다. 둘째로 <Extension>과 유사한 의미로서, 다시말해서 <Intension>과 대립적인 의미로서 Denotation은 하나의 언어표현이 나타내는(bezeichnen) 대상을 일컫는다. (H. Bußmann: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2., völlig neu bearb. Aufl., Stuttgart 1990 참조) 우리말에서는 이 두 가지 사용문맥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외연>(外延)(예: 이 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 1982), <외형적 뜻> (송 동준: 『독문학 번역의 제 문제』), 혹은 『지시의미』(J. Lyons: Language, meaning and context의 현대 언어학 연구회의 번역: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 74면)라고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외연>은 <Extension>의 의미를 나타내고, <지시의미>는 특정 발화상황에서 특정 표현이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행위를 일컫는 <Referenz>와 혼동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개념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 의미>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안 삼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서 제외되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Kloepfer 1967:8) 문학의 언어는 “모국어의 역사적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in der historischen Struktur der Muttersprache verwurzelt (Kloepfer 1967:9)) 개별적인 특색들이 문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및 학술 텍스트의 번역에 적용되는 <불변성>(Invarianz) 혹은 <등가관계>(Äquivalenz) 개념은 문학번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학번역은 문학 고유의 현상이거나와 일반번역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될 수 없다, 즉 그 자체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클뤼퍼의 주장의 핵심이다.

클뤼퍼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문학번역을 고찰하고 있는 바, 문학번역과 시학 및 해석학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추적하는 일이 끝이 없는 작업이듯이 문학번역도 완결될 수 없는 것이며, <진보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작업>(im progressiven, sich fortsetzenden Verstehen)을 통하여 그 자체가 문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일종의 진보>(eine Art der Progression)라고 규정한다. (Kloepfer 1967:125)문학번역에 대한 그의 해석학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번역은 문학이다 - 임의의 어느 하나의 문학, 이를테면 모방작이나 개작이 아니라, 문학의 문학이다.

Übersetzung ist Dichtung - nicht irgendeine Dichtung, etwa Nachdichtung oder Umdichtung, sondern die Dichtung der Dichtung.(Kloepfer 1967: 126)

클뤼퍼의 이러한 견해는 후고 프리드리히(Hugo Friedrich)(1965), 조지 슈타이너(George Steiner)(1975), 프리트마 아펠(Friedmar Apel)(1982; 1983)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된 명제는 문학번역은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 주로 번역과정의 탐구에 주안점이 놓여져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문예학적 번역연구들의 주요 연구대상은 번역의 역사 및 번역관의 역사이다. 클뤼퍼의 경우 키케로와 히로니무스 이래 루터 및 슐라이어마허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번역관(翻譯觀)의 역사가 그

의 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펠은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현 단계에서는 문학사 및 언어사와 연관하여 번역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시대별 번역사 및 주요 원작들의 번역사의 연구상의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pel 1983:31 f.)

이상에서 우리는 문학번역에 대한 60년대 이래의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상호 배타적인 두 연구방향이 문학번역이라는 연구대상을 놓고서는 결국 <문학번역은 일반적인 번역이론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다>라는 공통된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상론한 두 배타적 입장과는 완전히 달리 체코의 번역학자인 레비(Jiri Levý)는 1963년에 간행되고 1969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그의 저서 『문학번역. 한 예술장르의 이론』(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에서 문학번역을 언어학 뿐만 아니라 문예학분야로 간주하고 문학번역이 일반 번역이론의 테두리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언어학적 연구방법들이 문학텍스트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언어학은 여타 사회과학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새로운 문제영역으로 파고들어서 일련의 새로운 연구방법들을 개발해놓고 있는 바, 그 중 적지않은 것들이 앞으로 수년간 예술적 번역의 문제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n den letzten zwanzig Jahren durchlief die Linguistik eine raschere Entwicklung als die übrigen Gesellschaftswissenschaften, sie drang in neue Problembereiche ein und erarbeitete sich eine Reihe von neuen Methoden, von denen manche in den kommenden Jahren möglicherweise auch das Denken über Fragen der künstlerischen Übersetzung grundlegend beeinflussen werden. (Levý 1969:22)

레비의 이러한 강령적인 예측은 보그랑드(Beaugrande)(1978), 콜러(1988)등의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언어학적 번역이론내의 새로운 경향

80년대 중반부터 번역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의 여러 그룹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이 말한 바와 같은 학문연구의 새로운 틀(new paradigm)을 추구하는 번역연구에서의 이러한 흐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번역을 문화적 연관관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향이다. 여기서 문화적 연관관계란 번역에 있어서의 시간적·공간적 연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번역이라는 소통과정에 참여하는 원어텍스트의 작자, 원어텍스트의 독자 및 번역텍스트의 작자로서의 번역자, 그리고 번역텍스트의 독자가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배경전반을 일컫는다.

스넬-혼비(Snell-Hornby)는 최근 번역이론의 추세에서 다음 네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번역을 언어적 전환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전환>(cultural transfer)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번역을 단순한 기호전환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소통행위>(act of communication)로 파악하는 점, 셋째로 원어텍스트가 지니는 형식의 측면에 주목하기보다는 <번역텍스트의 기능>(function of the target text)의 연구를 지향하는 추세, 넷째로 텍스트를 일종의 동떨어진 언어표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Snell-Hornby 1988:43f.)

이러한 새로운 변화추세는 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 양 진영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의 주요명제들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2.1. <목적이론>(Skopostheorie)

카테의 언어학적 번역이론, 특히 번역을 단지 언어의 문제, 즉 두 언어

사이의 <기호전환>(Transkodieren/Umschlüsselung)으로 고찰하는 이 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예학적 번역연구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언어학적 번역학내에서도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텍스트언어학, 언어행위론, 인지언어학 등의 새로운 언어학 분야의 등장과 더불어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음소, 형태소 등의 최소단위로부터 문장차원을 거쳐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도 번역의 문제를 언어 자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점점 더 번역과정의 많은 요소, 이를테면 번역자의 역할, 번역텍스트 독자의 사전지식, 원어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등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이론 중의 하나가 페어메어(Hans J. Vermeer)의 <목적이론>(Skopostheorie)이다.

페어메어는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와의 공저 『일반 번역이론의 정초(定礎)』(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에서 <번역은 번역의 목적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목적이론>(Skopostheorie)를 내세우고 있다(Skopos란 그리스어로 <목적>을 뜻한다.):

모든 번역에서 지배적인 것은 목적이다. 번역의 목적설정이 다르면 텍스트의 번역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Die Dominante aller Translation ist der Zweck(Skopos).
Aus der Verschiedenheit der translatorischen
Zwecksetzungen ergibt sich die Verschiedenheit der
möglichen Übersetzungsstrategien für einen Text.
(Reiss/Vermeer 1984:134)

라이스/페어메어는 무엇보다도 먼저 번역자의 위상에 주목하여 번역자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번역텍스트의 생산자의 위치에서 번역의 상황에 <적합하게>(adäquat), 즉 번역의 목적에 알맞게 번역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번역의 목적은 번역텍스트의 독자의 상황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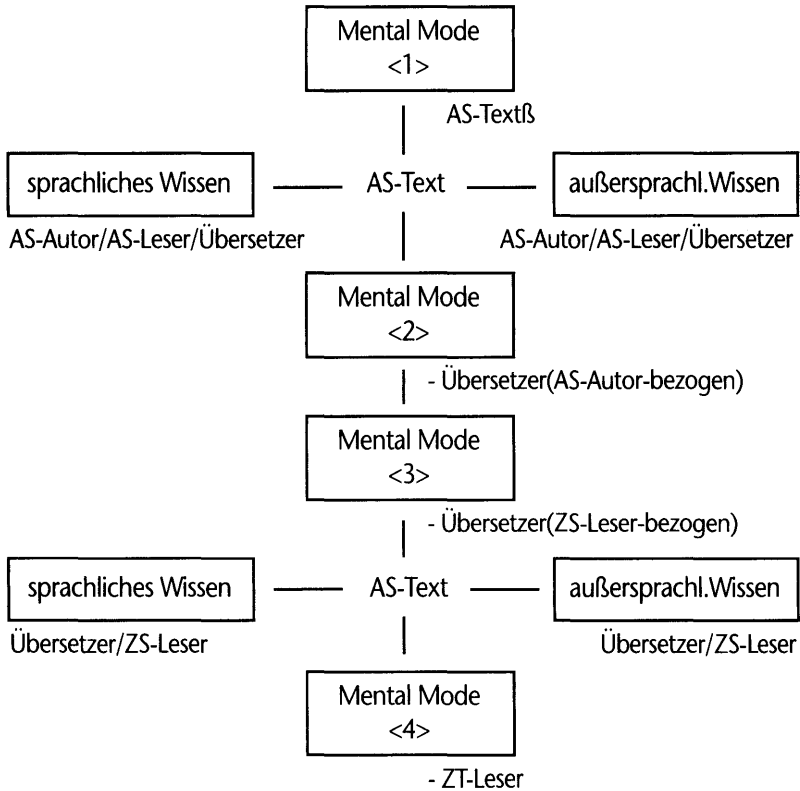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는 원래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풍자로 쓰여졌는데, 오늘날에는 이 작품이 많은 번역을 통하여 환상적인 모험소설 내지 동화로 읽혀지고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원작의 창작당시의 상황과 번역의 수용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스/페어메어는 이러한 점을 텍스트의 기능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바, 번역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 즉 <원어텍스트의 기능이 불변하는 경우>(Funktionskonstanz)와 <원어텍스트의 기능이 변하는 경우>(Funktionsveränderung)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동화로서의 「걸리버 여행기」의 예는 후자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라이스/페어메어에 의하면 <원어텍스트의 기능이 불변하는 경우>는 번역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번역의 상황은 대체로 시·공간적으로 원어텍스트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의 목적에 따라 번역의 상황에 적합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가령 미국의 부시(Bush)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행한 연설문이 한국의 한 일간지에 번역되어 게재되었을 경우 영어의 연설문 텍스트와 한국어 번역텍스트는 기능의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어텍스트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정강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기능을 지니는 반면, 한국어 텍스트의 경우 후자의 기능은 사라진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가 서투른 한국출신의 교포에게는 번역텍스트가 영어텍스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이 연설문이 소년층 독자를 상대로하는 소년신문에 게재될 경우를 가정해 볼 때, - 라이스/페어메어의 견해에 따르면 - 번역자 혹은 이 신문의 편집자는 소년층 독자의 어휘지식 및 사회지식 수준에 알맞게 텍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텍스트를 <텍스트작성자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ein Informationsangebot an einen Rezipienten seitens eines Produzenten (Reiss/Vermeer 1984:19))라고 한다면, 번역텍스트는 번역자가 번역어로 원어텍스트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번역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자가 단순히 언어전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번역어의 텍스트 수용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번역하는 번역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페어메어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번역 및 통역 연구소의 동료교수인 쿠르트 코온(Kurt Kohn)은 페어메어의 이러한 견해를 자신의 심리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도표(2)와 같은 번역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페어메어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필자와의 대담에서) 코온의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2) Kognitives Übersetzungsmodell von Kohn

4) 따라서 번역텍스트는 원어로 구성된 정보제공에 대한 번역어로의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라이스/페어메어는 $\langle \text{Translat} = \text{Informationsangebot}_Z \rangle$ ($\text{Informationsangebot}_A$), 혹은 짧게, $\langle \text{Trl} = \text{IA}_Z(\text{IA}_A) \rangle$ 라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Reiss/Vermeer 1984:76)

원어텍스트의 저자(생산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심상(mental model-1) 속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언어적·언어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어텍스트를 작성한다. 이 원어텍스트의 독자(수용자)인 번역자는 자신의 원어지식과 원어문화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기 나름대로 원어텍스트에 대한 심상(mental model-2)을 구성한다. 그는 이 심상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에서 어떻게 옮겨놓을 것인가에 대해 궁리하여 다시 또 하나의 심상(mental model-3)을 구성하는 바, 이것이 번역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이것에 입각하여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어의 언어지식 및 언어외적 지식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예상독자의 언어적·언어외적 지식을 감안하여 번역텍스트를 작성한다. 번역을 통한 이와같은 소통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번역어의 독자는 번역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심상(mental model-4)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과정의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네 단계의 심상(mental model)들이 언제나 일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심상-2에서 심상-3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원어텍스트의 상황과 번역의 상황의 차이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안(Bearbeitung)의 과정이 - 경우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 필요불가결하다고 코온은 주장하고 있다.

페어메어와 코온의 이와같은 견해에 따르면(외국어수업의 목적이나, 초기 성경번역에 사용된) 축어역(Interlinearversion)을 비롯하여 번안, 개작, 파로디(Parodie), 트라베스티(Travestie), 아동 및 소년판(版), 그리고 표절 및 외국문학작품의 줄거리 개요 등등의 모든 것이 번역에 속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번역>(Übersetzen) 뿐만 아니라 <통역>(Dolmetschen)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의 <Übersetzungstheorie>라는 용어대신에 <Translationstheorie>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라이스/페어메어가 번역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번역이론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번역과 번안의 차이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엄밀한 의미의 번역상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의 번역상황이란 번역자가 번역텍스트에 원어텍스트의 내용과 형식 및 기능이 최대한도로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번역상황에서 원어텍스트의 저자, 원어텍스트

의 독자이면서 동시에 번역텍스트의 저자로서의 번역자, 번역텍스트의 예상독자, 및 두 텍스트의 각각의 시간·공간적, 문화적 배경 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번역상황에서 번역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번역텍스트와 원어텍스트의 관계는 <등가관계>(Äquivalenz)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번역자는 번역텍스트가 원어텍스트와 <등가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여 번역과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에서 여러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원어와 번역어의 언어구조의 차이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 원어텍스트 독자와 번역텍스트 독자의 상이한 사전지식과 문화적 배경, 번역자에 의한 원어텍스트의 상이한 해석 등등의 요인으로 인하여⁵⁾ 많은 경우 등가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변안의 단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번역과정에서의 부득이한 변안과 소설 「걸리버 여행기」의 동화판과 같은 명백한 변안을 분리하여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 그 까닭은 첫째, 번역에서는 등가관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변안에서는 그렇지 않고, 둘째, 변안은 번역의 특수한 형태, 즉 번역에 특수한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요소가 가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동화판의 경우 <특정한 독자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 소설을 각색한 연극의 각본이나 영화의 시나리오의 경우 <특정한 매체를 위한> 목적이 있다. 번역과 변안의 구분의 당위성은 변안이 동일한 언어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실로도 설명된다.

두 언어로 이루어지는 소통과정 전반을 포괄하려는 라이스/페어메어의 <목적이론>(Skopostheorie)이 과연 번역이라는 연구대상에 어떠한 학문적인 결실을 실제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포괄적인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번역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킨 결과 그것의 하위 개념들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연 포괄적인 이론이 어떠한 가치를 지닐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엄밀한 의미의 번역과 변안의 구분을 주장하는 이론, 등가관계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번역이론은 현재의 번역이론의 경향에 있어서는 소수설에 머무르고 있다.

5) Koller 1983:92 f. 참조.

6) Koller 1983:92 참조.

2.2 <새로운 방향 설정>집단(Neuorientierungs-Schule)

1986년 일군의 번역학자들이 스넬-혼비를 중심으로 모여 『번역학. 새로운 방향 설정』(Übersetzungswissenschaft. Eine Neuorientierung)이라는 논문집 발간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및 마인츠(Mainz)대학(게르머스하임 Gernersheim 소재) 소속의 번역연구소에서 번역가 양성과 번역이론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고 여기에 라이프치히 학과의 노이베르트(A. Neubert), 행위론에 입각하여 번역행위론을 전개한 핀란드(Finnland)의 홀츠-만트타리(J. Holz-Mänttari), 해석학적 입장에 서있는 팍프케(F. Paepcke)(하이델베르크)와 슈톨체(R. Stolze)(다름슈타트 Darmstadt),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연구 및 번역 전문가인 쟈(F. Senn)(취리히 Zürich) 등이 가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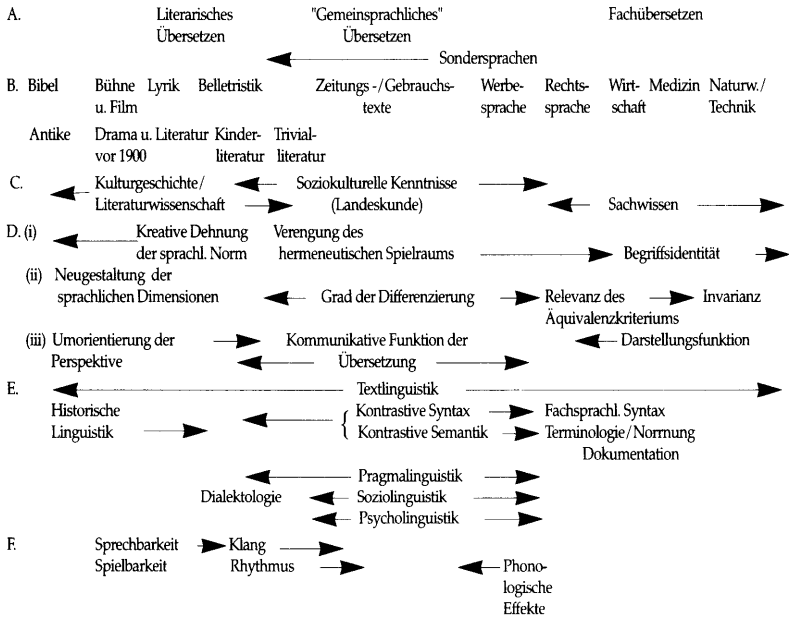
언어학 중심의 번역학이 언어학의 분과분야이며, 문예학에 입각한 번역 연구가 비교문학에 소속되는 분야라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한편으로는 문학번역과 일상 및 전문 텍스트의 번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번역연구의 실상을 비판하고 번역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학제(學際)간의, 다각적인 단위로서의 번역학>(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als interdisziplinäre, multiperspektivische Einheit)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Snell-Hornby 1986:12)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에 있어서 이론과 실체가 동떨어져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번역(이론)의 목표는 번역과정을 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번역가에게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번역에 이를 수 있는 번역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nell-Hornby 1986: 12)

스넬-혼비는 이 논문집의 서론에서 이처럼 <통합적인 번역학>의 연구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규정의 방법은 <원형이론>(Prototypologie)에 입각한 것이다. 원형이론이란 원형을 중심으로 범주가 이루어지고 그 범주의 가장자리 경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⁷⁾ 이에 따르면 문학텍스트의

7)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원형이론을 간략하게 부연하여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분류이론 혹은 범주론에 따르면 각 범주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데, 이것은

번역과 일상 및 전문텍스트의 번역도 마찬가지로 양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일상 텍스트에 속하는 신문의 사설에서도 종종 문학적 표현들이 눈에 띄고, 통속문학의 경우 문학적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텍스트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스넬-혼비는 원형이론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번역학>의 연구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도표(3)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도표(3)



Spannungsfeld: Textsorte / Übersetzungsrelevante Gesichtspunkte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속의 조건으로서 공통된 자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범주론이 어휘론의 <의미성분 분석>의 주요방법론이 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총각>이라는 낱말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남자>, <성인>, <미혼>이라는 세 가지 자질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총각」 범주와 「비총각」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형이론에 의하면 범주가 자질들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다기 보다는 원형(Prototyp)이 범주의 중심에 있고 가장자리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오랜 기간동안 동거 상태에 있는 남자> 라든가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총각>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 이러한 원형 이론을 통하여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

이 도표는 거시적 차원 (A)로부터 미시적 차원 (F)에 이르는 단계적 모델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각 범주들의 경계는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되기에 명확한 경계선이 빠져있다. A 차원은 이제까지 완전히 분리하여 고찰되어 온 종래의 번역의 범위를, B 차원은 기본적인 텍스트 유형들의 원형분류를, C 차원은 번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어학 이외의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D 차원은 번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관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D(i)는 원어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요소들을, D(ii)는 번역에서 성취해야 하는 기준을, D(iii)는 번역텍스트의 수용자 혹은 독자를 위한 번역의 기능을 나타낸다. 문학 번역의 경우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낱말과 문장구조의 이해를 넘어서서 작가가 뜻한 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번역자는 언어규범을 창조적으로 확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해학이나 은유의 번역에서와 같이 번역어의 여러 언어차원들을 새로이 재형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번역텍스트를 원작의 시간·공간적, 사회·문화적 규범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점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E 차원에서는 번역과 연관된 언어학의 분야들이 열거되었는데, 텍스트 언어학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F 차원은 개개의 텍스트유형에 중요한 음운론적 측면들을 열거하고 있다.(Snell-Hornby 1986:16-20)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넬-혼비는 문학텍스트의 번역으로부터 전문 텍스트의 번역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번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학문분야로서의 번역학의 뼈대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무엇보다도 최근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온 언어학의 여러 분야의 이론적 뒷받침에 힘입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으로는 텍스트 언어학, 언어행위론, 필모어(Fillmore)의 프레임(Frame)의미론, 인지언어학 및 심리언어학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구상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페어메어의 <목적이론>(Skopostheorie)과 홀츠-맨트태리의 번역행위론이다. 무엇보다도 번역의 목적에 중점을 둔 결과, 번역과정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원어텍스트의 지위는 자연적으로 격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를 페어메어는 <원어텍스트의(절대적인 권력의) 폐위>(Entthronung des AS-Textes)라 일컫고 있다. 스넬-혼비가 페어메어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점은 그녀가 <등가관계>(Äquivalenz)

개념을 번역이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⁸⁾ 그리고 번역을 언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로서 접근해 가는 데에서(Snell-Hornby 1988:43) 여지없이 드러난다.

스넬-혼비의 이와같은 「통합적인 번역학」의 구상은 1988년에 출판된 그녀의 저서 『번역 연구. 통합적 접근』(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나, 여기서 제시된 뼈대에 살이 붙어서 제 모습을 갖추려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많은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3.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역사·기술적 연구방향> (historisch-deskriptive Ansätze)

<번역>이라는 개념은 <과정>으로서의 번역과 <결과>로서의 번역,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언어학적 번역이론이 주로 번역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문예학적 번역연구에서는 번역의 결과인 번역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진영에서는 전자의 이론을 <번역의 제작이론>(übersetzerische Produktionstheorie)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일상 및 학술적인 텍스트에만 적용될 수 있고, 문학텍스트의 경우

8) 스넬-혼비가 <등가관계>개념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등가관계를 표시하는 용어 자체가 영어(equivalence)와 독일어(Äquivalenz)에서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발전·사용되어 왔고, 전문용어로서도 상이한 사용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즉 <Äquivalenz>는 정태적이고 일차원적(static and one-dimensional)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equivalence>는 대략적이고 불분명하게(approximative and vague (Snell-Hornby 1988:21)) 쓰이고 있는 점, 둘째, 이 개념은 컴퓨터 번역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인간에 의한 번역에는 부적절하다는 점, 셋째, 번역이론의 발전과 함께 등가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부각되어 무려 58가지의 등가관계의 유형들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등가관계는 번역의 절대적인 속성일 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이론의 기본개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Snell-Hornby 1986:13-16 및 1988:13-22 참조) 그러나, 이 개념이 설령 영어권 및 독일어권의 번역이론 내에서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의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고, I.4.(번역이론의 흐름의 방향)에서 상론되는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히 언어체계(langue)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스넬-혼비가 열거한 이유들은 충분히 반박될 여지가 있다.

에는 언어학적인 방법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문예학적 번역연구는 역사적·기술적 연구를 목표로한다는 것이다. 이 장(章)에서는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최근 경향으로서 <Manipulation>그룹과 괴팅엔(Göttingen)대학의 특별연구영역(Sonderforschungsbereich)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3.1. <Manipulation> 그룹

벨기에(Leuven), 네덜란드(Amsterdam) 및 이스라엘(Tel Aviv)을 중심으로 하여 문학번역을 연구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번역이론을 비교문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고있는데, 람베르트(J. Lambert), 르페브르(A. Lefevere), 투리(G. Toury), 헤르만(Th. Hermans)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기술(記述) 번역연구>(deskriptive Übersetzungsforschung)를 지향하는 이들은 문학의 번역은 하나의 특정한 언어공동체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현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번역은 그 특성과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체계 내의 제반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연구방향은 1978년에 이르러서야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그전까지는 연구성과가 대체로 널리 출판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 Leuven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이 비로소 동일한 연구방향에 서있는 학자들이 합류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심포지움의 강연논문집으로 『문학과 번역: 문학연구내의 새로운 전망』(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이 1978년에 출간되었다. 이 심포지움 이후 이 그룹내의 학자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지난 십여년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활자화 되어 있고, 최근 1989년부터는 이 그룹의 기관지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목표』(Target)라는 학술지가 년 2회 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일환으로 1985년 『문학의 조작. 문학 번역 연구』(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라는 논문집이 간행되었는데, 이 논문집의 제목이 이 그룹의 명칭으로 - 구성원들의 꺼림에도 불구하고

고 - 쓰이게 되었다. 실제로 이 논문집의 편집인인 Theo Hermans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번역어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번역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원어 텍스트 조작이 수반된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arget literature, all translation implies a degree of manipulation of the source text for certain purpose. (Hermans 1985:11)

따라서 이 그룹의 출발점은 종래의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그것, 즉 <번역자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등가관계>와는 대조적인 <공인된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된 클립퍼, 슈타이너, 아펠이 말한 것과 같은 이유, 즉 문학작품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다룰 수 없고, 문학번역의 중요한 전제조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언어학적 번역이론을 배격하고 있다. (Hermans 1985:10)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 주로 원어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는 반면에 이 기술연구방향에서는 번역 텍스트와 이것이 번역어의 문학 및 문화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번역의 제작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번역어의 문학과 문화의 규범을 밝혀내는 작업이 주요 연구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론적 밑받침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예학자인 Itamar Even-Zohar의 <다원체계로서의 문학> (literature as a polysystem) 개념인 바, 한 특정사회안의 문학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 경향들이 독자층을 겨냥하여 주도권을 다투는 여러 체계들의 집합이자, 역동적인 체계들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체계에서 번역작품은 <일차적> 혹은 <이차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데, 번역작품이 번역어의 문학의 다원체계의 중심부에 활발히 참여할 때, 즉 번역어의 문학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착상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때, <일차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특정한 언어공동체의 문학이 체계를 굳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단계이거나, 미약할 때, 혹은 전환기이거나, 위기에 처해있을 때, 문학적 공백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번역작품이 「이차적」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번역어의 기존 문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기존의 규범을 따라갈 경우에 나타난다.(Even-Zohar 1978) 이렇게 볼 때, 문학작품의 번역은 문학체계 내에서 생존과 지배를 위한 끊임없는 경쟁에 끼어드는 요소이며, 번역어의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⁹⁾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헤르만스는 이 그룹의 연구방향의 특징을 <기술적>(descriptive), <번역텍스트 중심의>(target-oriented), <기능적>(functional), <체계에 관한>(systemic) 연구라고 규정한다.(Hermans 1985:10)

우리는 여기서 번역어의 문학체계 내에서의 번역텍스트의 영향을 연구하는 이 이론의 연구성과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는 없다. 그 나름대로 번역 연구에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그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번역텍스트 자체는 8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경우 번역텍스트의 오류와 부적합한 표현을 부각시킴으로써 원작의 뛰어난 문학성이 강조되곤 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번역텍스트중심」으로, 즉 원작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진행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스넬-혼비(1988:25f.)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틀>(new paradigm)에 따르면, 번역의 평가의 문제는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다. 번역텍스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원작과의 관련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번역작품은 어디까지나 번역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번역작품의 수용의 문제를 고찰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수용상황과 연관시킬 때 비로소 번역작품의 전반적인 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2. <Göttinger Sonderforschungsbereich>

<Manipulation>그룹과 같이 <역사·기술적> 연구방향을 지향하는 다른 하나의 연구집단으로서 괴팅엔 대학의 Sonderforschungsbereich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을 들 수 있다. <독일 학술진흥재단>

9) Snell-Hornby 1988:24 참조.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지원을 받아 1985년 이래 운영되고 있는 이 연구 프로젝트는 『Göttinger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Übersetzungsforschung』이라는 제목의 총서 형태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고, 빈번하게 국제적인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번역연구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사업의 총지휘자인 프랑크(Armin P. Frank)는 총서 제1집, 『문학번역. 문학번역의 문화사에 대한 사례연구』(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Fallstudien zu ihrer Kulturgeschichte)의 서문에서 이 연구사업의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프로젝트는 많은 점에서, 즉 기술적이고 기능의 측면을 중시하는 점과 문학 규범에 대한 관심 및 사례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점 등등에서 〈Manipulation〉그룹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그룹이 번역텍스트에 전적으로 비중을 두는 점, 즉 〈번역텍스트중심〉(target-oriented) 연구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번역텍스트만을 강조하는 것은 종래의 번역이론에서 번역을 오로지 원작에 치우쳐서 평가해온 관례에 대한 〈지나친 반응〉(Überreaktion)이라고 비판하고 괴팅엔의 프로젝트는 원어텍스트에서 번역텍스트로의 〈전환에 중심을 둔〉(transfer-orientiert) 연구방향을 지향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하여 종래의 원어텍스트 중심의 연구와 번역텍스트 중심의 연구의 상반된 입장을 〈종합〉(Synthese)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Frank 1987:XIII)

여기에서 〈전환 중심〉(transfer-orientiert)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크에 의하면 이 연구사업은 문학작품의 번역은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원작과 달라지게 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이유로서는 두 개의 상이한 언어체계, 각기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상이한 문학체계, 정신적·물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형성된 두 문화, 어떻게 해야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점, 원작을 역사적·개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원작과 번역텍스트의 차이점 및 같은 원작의 여러 번역들 사이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괴팅엔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과제이다. 이 차이점은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언어·문학·문화 모든 면에서

창조적으로 작용하여 번역어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작과 번역의 차이를 프랑크는 <문화를 창조하는 차이> (kulturschaffende Differenz)¹⁰⁾라고 일컫고 있다.

이와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괴팅엔 프로젝트는 연구범위를 <낭만주의 시대 이래의 독일에서의 문학번역의 문화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번역관의 역사(Geschichte der Übersetzungskonzeption)와 실제 번역의 역사(Geschichte der "Übersetzungspraxis")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번역의 역사연구는 다시 두 개의 소분야로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는 <외적인 번역사>로서 어떠한 작품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느 번역자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인 관련하에 번역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번역사>로서 문학사내의 문체사 및 해석사적인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번역(텍스트) 자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과제를 수행한다.(Frank 1988a:195)

<Manipulation>그룹이 언어학적 번역이론을완전히배격하는 것과 같이 괴팅엔 프로젝트도 출발 당시에는 언어학적인 방법론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언어학에 입각한 번역연구는 문학번역의 탐구에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

Sprachwissenschaftlich orientierte Übersetzungsstudien können also kein grundsätzliches und theoretisches Angebot für die Erforschung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zur Verfügung stellen. (SFB 309, Hauptantrag 1984:1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를 겪게되어

[이 연구사업에] 소속된 모든 학자가 언어학적 지식을 단호하게

10) Frank 1987:XVI 참조.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학과 문화사적인 인식목표에 기여하는 언어학의 연구결과와 방법들이 ... 적용되고 있다

[...] daß nicht alle seiner Angehörigen sprach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rundweg ablehnen; vielmehr werden durchaus solche sprachwissenschaftlichen Befunde und Methoden adaptiert und angewendet, die ... dem literatur- und kulturgeschichtlichen Erkenntnisziel dienen. (Frank 1988:XII)

라고 밝히고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병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4. 번역이론의 흐름의 방향

이상에서 우리는 번역연구의 양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최근 십여년의 추세를 살펴 보았다. 60년대의 상호 배타적인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 〈Manipulation〉그룹을 제외하면 -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포용력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 번역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문학번역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문예학적 번역연구도 언어학적 방법론에 대한 종래의 거부적이던 태도를 다소 완화하게 되었다. 실제로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음소, 형태소 등의 최소단위 및 문장단위로부터 텍스트의 단위로 확장됨에 따라 언어학의 적용범위가 60년대에 비하면 엄청날 정도로 넓어졌다. 여기에는 텍스트언어학, 언어행위론, 인지언어학 등의 최근의 눈부신 연구성과의 뒷받침이 있다. 따라서 언어학적 방법의 적용을 배격하는 데에 사용된 60년대의 논거, 즉 문학번역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언어학적인 방법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라는 이유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언어학적 방법의 전능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학번역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제간의 공동연구(interdisziplinäre Zusammenarbeit)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콜러는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

의 건설적인 〈분업〉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건설적이란, 문예학자는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성과를 참작하고, 언어학자는 문예학적 고찰방법의 연구성과를 - 이것이 언어·문체적 분석과 관련될 경우 - 도입하는 양식의 의미한다.(Koller 1988:68) 그러나, 학제간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지만(예: Snell-Hornby), 실제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청사진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¹¹⁾

여기에서 우리는 학제간의 효과적인 공동연구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종래의 〈규범적〉(präskriptiv) 번역이론과 〈기술적〉(deskriptiv) 번역이론의 대립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시정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영향으로 번역에 대해서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아니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이리저리하게 번역해야 한다〉, 〈번역이론은 올바른 번역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등의 관념이 지배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의역〉과 〈직역〉, 슈라이어마허의 〈verdeutschende Übersetzungsmethode〉와 〈verfremdende Übersetzungsmethode〉, 레비가 말한 바와 같이 독자로 하여금 원작을 읽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illusionistische) 번역방법과 그러한 〈착각을 막는〉(antiillusionistische) 번역방법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언어학적 번역이론내에서도 “번역학은 단순히 기술하는 학문일 수만은 없고, 언제나 동시에 규범적인 학문”(daß Übersetzungswissenschaft keine rein beschreibende Wissenschaft sein kann, sondern immer zugleich normative Wissenschaft ist (Koller 1983:92))이기 때문에 번역학은 어떻게 하면 텍스트가 최선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가, 한 텍스트내에 어떠한 잠재적인 등가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번역어의 표현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들과 조건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규범적·평가적으로 명시해야 한 다라는 견해가 자리를 굳히고 있다.¹²⁾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문예학적 번역연구는, 키케로 이래의 번역이론과 언어학적 번역이론을 몽땅그려 〈규범적이고 (번역의)제작에 관한

11) Snell-Hornby의 통합적인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Koller 1988:68 참조.

12) Koller 1983:95 참조.

이론)(präskriptiv-produktive Theorie)이라고 일컫고 이러한 이론으로 써는 문학번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격하고 실제의 번역작품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고 번역어의 문학체계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역사적·기술적 연구방향>(historisch-deskriptive Orientierung)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번역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규범적>(präskriptiv) 번역이론과 <기술적>(deskriptiv) 번역이론의 대립을 넘어서서 번역자가 실제로 하나의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이 과정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번역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떻게 수용되는가, 동일한 원작의 두 개 이상의 다른 번역들이 독자에게 다른 양태로 수용될 경우 이 번역들의 각각의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초래하는가 등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언어학 혹은 문예학 연구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학제간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둘째, <등가관계>(Äquivalenz) 개념에 대한언어학적 번역이론 및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협소한 견해가 고쳐져야 한다. 이 개념은 언어학적 번역이론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상이성 내의 등가관계>(Äquivalenz in difference)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가관계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로만 야콥슨(1959)과 위에서 논의된 카데가 주로 <일차적 의미차원>(denotative Ebene)에서의 등가관계의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한 이래 수많은 번역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원어텍스트와 번역텍스트 사이의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등가관계 개념으로 설명하여 왔다. denotative/inhaltliche Äquivalenz를 비롯하여 textuelle, dynamische, formale, konnotative, stilistische, pragmatische, textnormatische, kommunikative Äquivalenz 등 수십가지의 등가관계의 세분화된 명칭과 개념들이 번역이론 내에서 쓰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스넬-혼비 뿐만 아니라, 문예학적 번역연구자들의 경우 등가관계 개념을 너무나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결과, 이 개념으로는 번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¹³⁾

필자는 여기서 <등가관계>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간의 언어를 여러 차원에서 서술할 수 있듯이, 다시 말해서 언어의 한 표현이 여러 차원의 정보, 즉 음운론적 정보로부터 형태론적, 통사론적, (일차적)의미론적, 어휘론적, 내용적, 주제적, 문체적, 화용론적, 문화적, 개인적·연상적 정보 등을 지니고 있듯이, 등가관계도 각 차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두 언어의 언어체계 및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하여 두 언어의 표현들 가운데 이 모든 차원에서 등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없다. 실제 번역에서 원어텍스트의 특정한 표현과 등가관계에 있는 번역어의 표현을 찾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한 차원에서의 등가관계를 고려하다보면, 다른 차원에서의 등가관계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번역자는 각 차원에서의 가능한 등가관계를 측정하여 <등가관계의 우선순위>(Hierarchie der Äquivalenzbeziehung)을 도출하게 된다.¹⁴⁾ 번역과정에서 각 표현마다 형성되는 이러한 등가관계의 우선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 텍스트와의 연관성이다. 이렇게 볼 때 등가관계 개념은 최근의 번역이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언어체계(language)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다.

셋째, 번역은 <결정과정>(Entscheidungsprozeß)의 연속으로 고찰될 수 있다.¹⁵⁾ 번역과정에서는 등가관계의 우선순위에서 전체 텍스트와의 연관관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 표현에 가장 적합한 번역어의 표현을 결정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텍스트는 본질상 다의적(vieldeutig)이고 다층적(vielschichtig)이기 때문에¹⁶⁾ 다양한 해석(Interpretation)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원어텍스트가 원어의 독자에게 부여하는 만큼의 해석의 가능성을 번역어텍스트가 번역어의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번역에 있어서는 불가능한데, 그 까닭은 첫째, 원어와 번역어가 상이한 구조, 즉 상이한 음운형태, 상이한 어휘 및 통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특정 문학텍스트가 얼마만큼의 해석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의적인 표현을 번역할 때 이 표현이 지니고 있는 만큼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지

13) Snell-Hornby 1986:13-16과 1988:13-22 및 Frank:1988:184 f.참조.

14) Koller 1983:191 참조.

15) Levý 1967:1172 참조.

16) Ďurišin 1972:363 f.와 J. Lotman 1972:95 참조.

닌 번역어 표현이 없다면, 번역자는 원어표현보다는 제한된 해석범위를 지닌 번역어의 표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번역자는 원어표현의 기능,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원어텍스트 내에서의, 또한 번역어의 상황에서의 중요성에 맞추어 번역어 표현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번역어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번역은 원작에 접근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문학텍스트가 <다양한 의미가 잠재되어 있는 것>(Sinnpotential)이고 이것이 개개의 이해행위에서, 개개의 해석에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학텍스트의 번역은 번역자 개인 및 시대와 결부된, 그 시대의 특수한 수용조건을 반영하는 텍스트이해이다.¹⁷⁾ 문학텍스트를 그것의 전체적인 잠재적 의미에 상응하게 번역하는 것, 이러한 이상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실현불가능하다. 왜 <완벽한 번역>(die perfekte Übersetzung)이 있을 수 없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문학번역에 대한 학제간의 효율적인 공동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학제간의 공동연구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가 콜러(1988:68)가 제시한 <분업>(Aufgabenteilung) 및 프랑크가 진단한 <병존>(Nebeneinander)의 형태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협업의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협업이 전개될 수 있는 분야로서 번역비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번역비평의 과제

1. 번역비평의 필요성

번역의 필요성, 더우기 양질의 번역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까지도 60년대까지 양산된 일본어 중역이 번역문학의 시장에 산재해 있고, 번역에 대한 책임감없이 소위 <찢어발기기 식>의 번역관행이 자취를 감출 내색을 하지 않고 있는 서글픈 상황이다. 이 경수 교수의 지적

17) Frank/Hulpke 1987:105 f. 및 Iser 1975:233 ff. 참조.

대로(이경수 1986:276) 단순히 외국어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착각 속에서 번역작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번역을 단순한 언어의 문제로 여기는 그릇된 편견이 우리의 번역문화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번역텍스트를 원어텍스트와 견주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문학작품들을 겨우 부분적으로만, 많은 경우 왜곡된 모습으로 수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번역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번역의 전문화를 이룩하는 방도로서 번역가의 양성과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번역가의 등용제도를 비롯하여 대학 등의 학문기관을 통하여 번역이론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것 외에 번역비평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번역비평을 통하여 양질의 번역을 보호·육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향상시키고, 오역을 추방할 수 있는 번역문화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의 번역현실은 참다운 번역비평이 전무한 상태이다. 흔히 일간지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문학작품에 대한 서평에서도 대부분 원전과 번역텍스트의 정확한 비교분석없이 번역에 의존한 작품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번역 자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칠 뿐이다. 번역비평 부재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서 김 병옥 교수의 지적대로 전통적인 유교적 위계질서에 얽매어서 번역자의 “체면을 존중하는 습성과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태도 때문에”(aus lauter Rücksichten und Vorsichten (김 병옥 1991:18)) 그리고 자칫 인신공격으로 오해될 위험의 소지를 피하려고 번역비평을 주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비평”(offene und konstruktive Kritik)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번역비평의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일간지 및 주간지의 문예란에 실린 기존의 번역비평의 실례들을 일괄해 보면, 번역비평의 체계적인 방법론과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경우 번역비평은 단지 내용적 차원에 나타나는 오역을 지적하는 데에 머무르거나, 정확한 분석을 결여한 채, 이를테면 번역이 <읽을 만하다, 원작에 버금간다, 원작의 어투를 살리고 있다, 서투르다, 문체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는 등등의 표현으로 <일괄적인 평가> (pauschale Urteile)에 그치고 있다.(Koller 1983:192) 심지어는 번역텍스트를 원어

텍스트와 비교하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형편없는 번역비평도 없지 않다.¹⁸⁾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번역비평의 체계적인 방법론과 객관적인 기준을 밝혀내는 작업이 급선무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번역비평에 관한 두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번역비평이론

2.1.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

라이스는 1971년의 저서 『번역비평의 가능성과 한계』(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에서 최초로 포괄적인 번역비평이론을 전개하면서 번역비평을 객관화시키려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라이스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번역의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적합한 범주”(objektive Kriterien und sachgerechte Kategorien für di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aller Art(Reiss 1971:7))를 밝혀내는 것이다.

라이스의 번역비평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빌러(K. Bühler)(1934)가 제시한 언어모델(Organonmodell)의 세 가지 언어기능에 입각한 텍스트유형론이다. 세 가지 언어기능이란 <현실의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의 기능>(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발신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기능>(Ausdrucksfunktion der Sprache) 및 <수신자에게 호소하는 기능>(Appellfunktion der Sprache)을 일컫는다. 라이스는 언어의 세 기능에 병행하여 텍스트의 유형을 텍스트내의 기능의 우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1) 내용이 강조된 텍스트(inhaltsbetonte Texte)
- (2) 형식이 강조된 텍스트(formbetonte Texte)
- (3) 호소가 강조된 텍스트(appellbetonte Texte)

라이스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에 따라, 즉 번역될 텍스트가 내용이 강조된 텍스트인가, 형식이 강조된 텍스트인가, 아니면 호소가 강조된 텍스트

18) Reiss 1971:10 f. 참조.

인가에 대하여 번역자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해당 텍스트에 적합한 번역의 방법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방법이란 번역에서 원작의 형식적, 언어적, 문체적 특성과 내용의 구조가 나타나도록 번역할 것인가(이 경우 번역텍스트의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니면 형식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에 있어서도 번역어의 상황에 맞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텍스트 유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가령 번역할 텍스트가 내용이 강조된 텍스트 유형에 속할 경우, 그에 알맞는 번역방법이란 <내용차원에서의 불변>(Invarianz auf der Inhaltsebene)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번역비평가가 할 과제는 원작의 내용이 번역텍스트에 빠짐없이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이다.(Reiss 1971:37)

라이스의 번역비평이론의 업적은 텍스트 유형론을 도입한 점인데,¹⁹⁾ 텍스트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유형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실제의 번역비평에 적지 않은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2.2. 베르너 콜러(Werner Koller)

콜러는 주로 오류의 지적에 그치는 기존의 번역비평의 태도를 비판하고 <과학적 번역비평>(wissenschaftliche Übersetzungskritik)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과학적번역 비평>은 아래와 같이 세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 원어텍스트의 분석(übersetzungsrelevante Textanalyse)
- 번역과 원어텍스트 비교(Übersetzungsvergleich)
- 번역의 평가(Übersetzungsbewertung)

(1) 원어텍스트의 분석

콜러(1983:209-216)는 번역과 관련된 텍스트자질들에 따른 텍스트유형을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분류·고찰하고 있다. 첫째, 콜러는 라이스와 유

19) 라이스의 텍스트유형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Koller 1983:201 f. 참조.

사하게 빌러의 언어모델의 세 가지 기능을 응용하여 언어의 기능에 따른 텍스트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i) 〈현실의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의 기능〉(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이 우세한 텍스트; (ii)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과 〈발신자의 내면을 표현하는 기능〉(Ausdrucksfunktion)이 동시에 작용하는 텍스트; (iii) 〈수신자에게 호소하는 기능〉(Appellfunktion)이 우세한 텍스트, 이 세 가지인데, 첫째 유형에는 대체로 학문적 텍스트가 속하고 둘째 유형에는 문학텍스트가, 셋째 유형에는 광고 텍스트가 속한다.

둘째, 내용적 특성에 따른 텍스트유형은 (i) 원어의 문화적 특수성이 없는 전문텍스트; (ii) 향토색이 짙은 문학에서와 같이 텍스트이해에 있어서 원어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텍스트; (iii) 원어문화의 특수성이 담겨 있지만 이것이 텍스트내에서 설명되는 텍스트 (예: 기행문); (iv) 원어문화의 특수성이 담겨있지만, 텍스트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 (예: 대부분의 순수문학)으로 구분된다.

셋째, 언어·문체적 특성은 어휘 및 관용어, 통사구조, 사용규범, 원어텍스트의 개별적인 자질 등의 요소에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텍스트는 (i) 원어 고유의 언어·문체적인 표현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ii) 언어·문체적으로 「중립적인」 텍스트의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한다.

넷째, 형식적·미적 특성에 따라 운율, 장단 등의 특정한 형식적·미적 표현수단을 사용하는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스트로 구분된다.

다섯째, 화용론적 특성에 따라 (i) 학문텍스트와 같이 원어텍스트와 번역텍스트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ii) 법률텍스트처럼 원어중심적인 텍스트; (iii) 원어중심적이면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allgemein menschliche Bedürfnisse)를 표현하는 텍스트(예: 일부의 순수문학); (iv) 원어로 쓰여지긴 했으나, 번역어문화 중심의 텍스트(예: 관광용 책자) 등으로 구분된다.

번역비평자는 이와같은 원어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하여 텍스트전체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각 단락에 있어서의 등가관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번역과 원어텍스트의 비교

이 단계에서는 이상의 원어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자질들이 번역텍스트에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들이 번역텍스트에서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가를 검토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비평자는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표현들을 바탕으로하여 번역자가 번역과정에서 설정한 등가관계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하여 번역자가 어떠한 번역원칙에 입각하여 번역을 수행하였는가를 추적한다. 이때 번역자가 역자 서문이나 후기에서 밝힌 자신의 번역원칙과 번역방법도 참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번역비평자 자신이 원어텍스트의 분석에서 추출한 등가관계와, 번역텍스트에서 추적된 번역자의 번역원칙 및 등가관계를 비교한다.

(3) 번역의 평가

번역과 원어텍스트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번역자의 결정이 적합한가의 여부에 대한 번역비평자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때 비평자는 자신의 평가의 기초가 되는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콜러의 번역비평 방법론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콜러가 〈번역의 평가는 언제나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한 점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Koller 1983:216) 특히 문학번역에 대한 비평의 경우에 - 명백한 번역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논외로 할 때 - 비평자는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원어텍스트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번역자에 의한 해석을 규범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하나의 특정 표현에 있어서 여러차원에서의 등가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원어와 원어텍스트 및 원어의 문화에 대한 번역자의 지식정도에 따라, 또한 번역과정에서의 번역자의 번역원칙 및 번역어 구사력에 따라, 번역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번역비평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번역자의 번역과정을 재구성하여 번역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콜러의 번역비평 방법론은 기존의 이론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각 차원의 등가관계간의 관계 및 등

가관계의 우선순위 설정의 역학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3. 번역비평을 통한 학제간의 공동연구

위에서 우리는 문학번역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 언어학적 번역이론과 문예학적 번역연구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번역비평을 공동연구의 발판으로 제안하였다. 이제 이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 즉 하나의 번역비평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설정하는 번역비평의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는 언어학적 번역이론이 번역비평 전반의 일반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바, 그것은 단계적 모델과 평가모델이다. 단계적 모델은 콜러의 번역비평이론에서와 같이 원어텍스트의 분석, 그것과 번역텍스트의 비교, 번역텍스트의 평가 등의 비평 작업의 과정을 서술하고, 평가모델을 통하여 번역비평자는 번역자의 결정과정을 재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예학적 번역이론은 원어텍스트가 번역되어온 역사, 원어텍스트 및 번역텍스트의 수용의 역사, 번역관의 역사, 원어텍스트와 관련하여 번역텍스트의 해석방법 등을 제공한다.

번역비평을 위한 평가모델에서는 개개의 번역상황에 관련된 언어적·언어외적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겐 음운론적 차원, 형태론적 차원,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어휘론적 차원, 부차적 의미의 차원, 연상적 차원, 화용론적 차원, 문체론적 차원, 문화적 차원, 주제적 차원, 텍스트 기능적 차원 등등이 속한다. 각 차원은 다른 차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차원들 사이에는 계층적 구조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인 계층에는 음운론적 차원, 형태론적 차원,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어휘론적 차원과 같은 순전히 언어적인 차원들이 속해있고, 가장 높은 차원에는 텍스트 기능적 차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계층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간의 계층구조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 그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 모든 차원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텍스트의 상황에 따라 해당 차원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비평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비평자는 근거있는 평가를 하

기 위해, 다시 말해서 원어텍스트의 다의적·다층적 표현들에 있어서 번역자가 이 표현들의 어떤 차원을 고려하였고 어떤 차원을 못 보고 지나쳤는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번역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번역비평자는 그외에도 번역텍스트의 특정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번역에서 참작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다른 차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론이 좀처럼 실제 번역에 실용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번역가 쪽에서 비난하는 소리를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다.²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추가 적절할 것이다. 소위 <시학>(Poetik)이 작가에게 직접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할 수 없듯이, 문학번역이론이 번역가에게 개별적인 실제적 번역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문학번역이론은 그보다는 오히려 번역비평가에게 번역비평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문학비평가가 시학의 기반위에서 문학텍스트를 다루는 것처럼 번역비평가는 이러한 토대위에서 번역텍스트와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제시된 번역비평은 번역이론과 실제 번역간의 접합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문학번역의 접근적 성격과 관련하여 볼 때 번역비평은 원어텍스트와 번역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어텍스트의 잠재적인 의미지평을 발굴해내고 번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Ⅲ. 맺는말

이 글을 끝맺으면서 덧붙이고 싶은 점은 학제간의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한 분야 내에서의 공동연구, 또한 이론과 실제번역의 공동작업은 효과면에서 볼 때, $1 + 1 = 2$ 가 아니라 3이상이라는 것이다. 번역에 관한 연구는 방대한 관련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 개개인의 역량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연구성과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괴팅엔 대학의 특별연구영역(Sonderforschungsbereich)의 연구체제는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문학번역>이라는 공동 연구목표아래 독문학, 영문학, 불문학을 비

20) Snell-Hornby 1986:10 f. 참조.

못하여 스페인문학, 스칸디나비아문학, 아라비아문학 등등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학자 개인의 연구의욕을 높이고 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Ulysses)가 1975년에 볼슬래거(H. Wollschläger)에 의해 번역·출간된 과정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율리시즈」는 1927년 고이에르트(G. Goyert)에 의해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번역 초기의 환호와는 달리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주르크ampf(Suhrkamp)출판사의 지원과 제임스 조이스 전문학자인 프리츠 쟈(Fritz Senn), 클라우스 라이헤르트(Klaus Reichert) 등의 학문적인 협조에 힘입어 볼슬래거가 1967년 번역에 착수하여 1975년에 새 번역판이 태어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제, 번역자와 출판사와 학자들의 삼위일체된 공동노력의 결과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공동연구, 공동작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한독문학 번역연구소의 설립은 우리의 번역문학계에 커다란 전환기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하여 풍성하고 알찬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빌면서 끝으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한 괴테의 말을 빌어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세계문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누구나 이 시대를 앞당기는 데에 힘써야 한다.

[...] die Epoche der Weltliteratur ist an der Zeit, und jeder muß jetzt dazu wirken, diese Epoche zu beschleunigen (Goethe zu Eckermann 31.1.1827)

라고 괴테는 말한 바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이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누구나 이 시대를 앞당기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pel, Friedmar (1982): Sprachbewegung. Eine historisch-poetologische Untersuchung zum Problem des Übersetzens, Heidelberg.
- Apel, Friedmar (1983): Literarische Übersetzung, Stuttgart.
- Beaugrande, Robert de (1978): Factors in a Theory of Poetic Translating, Assen(The Netherlands).
- Bühler, Karl (1934):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 Durisin, Dionyz (1972): Die Äquivalenz in der literarischen und nicht-literarischen Übersetzung, in: Slavica Slovaca, 7, S.359-377
- Even-Zohar, Itamar (1978):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Holmes et al. (1978), S.117-127.
- Frank, Armin Paul (1987): Einleitung, in: Schultze (1987), S.IX-XVII.
- Frank, A.P. (1988): Einleitung, in: Kittel (1988), S.IX-XIII.
- Frank, A.P. (1988): Rückblick und Ausblick, in: Kittel (1988), S.180-206.
- Frank, A.P./Erika Hulpke (1987): Poes deutscher Rabenhorst: Erkundung eines Übersetzungsgeschichtlichen Längsschnitte, Teil I (1853-1891), in: Schultze (1987), S.96-148.
- Friedrich, Hugo (1965): Zur Frage der Übersetzungskunst, Heidelberg.
- Harras, Gisela (1986): Interferenz. Sprachkontrast & Literarische Übersetzung, in: Deutsche Sprache. Zeitschrift für Theorie, Praxis, Dokumentation, 1986, 14, S.289-301.
- Hermans, Theo (1985): Introduction. Translation Studies and a New Paradigm, in: Th. Hermans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London & Sydney, S.7-15.
- Holmes, James S./Jose Lambert/Raymond van den Broeck (ed. 1978):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with a Basic Bibliography of Books on Translation Studies, Leuven.
- House, Juliane (1977):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 Iser, Wolfgang (1975): Die Appellstruktur der Texte. Unbestimmtheit als

- Wirkungsbedingung literarischer Prosa, in: R. Warning (Hrsg.):
Rezeptionsästhetik. Theorie und Praxis, München 1975, S.228-252.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On Trans-
lation, hrsg. von R. Brower, Cambridge/Mass. 1959 1966, S.232-239.
- Jumpelt, Walter Rudolf (1961): Die Übersetzung naturwissenschaftlicher
und technischer Literatur. Sprachliche Maßstäbe und Methoden zur
Bestimmung ihrer Wesenszüge und Probleme, Berlin.
- Kade, Otto (1968): Zufall und Gesetzmäßigkeit in der Übersetzung,
Leipzig (Beihefte zur Zeitschrift Fremdsprachen, I.).
- Kim, Byong-Ock (1991): Zur Entstehung eines Instituts für Übersetzungs-
forschung zur deutschen Literatur. Ein koreanischer "Malte" im
Werden. Ms.
- Kittel, Harald (Hrsg. 1988):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Stand und
Perspektiven ihrer Erforschung, Berlin (Göttinger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Übersetzungsforschung; Bd.2).
- Kloepfer, Rolf (1967): Die Theorie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München.
- Koller, Werner (1983):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2.durchges. u. erg. Aufl.(1979), Heidelberg.
- Koller, Werner (1988):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unter linguistischem
Aspekt. Bedingungsfaktoren der Übersetzung am Beispiel Henrik
Ibsen, in: Kittel (1988), S.64-91.
- Levy, Jiri (1967): Translation as a Decision Process, in: To Honor Roman
Jakobson. Essays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Vol.II., Den
Haag, S.1171-1182.
- Levy, Jiri (1969):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Frankfurt a.M./Bonn.
- Lotman, Jurij (1972): Die Struktur literarischer Texte, München.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 Reiss, Katharina (1971):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

- 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 Reiss, Katharina/Hans Vermeer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 Salevsky, Heidemarie (1986): Probleme des Simultandolmetschens. Eine Studie zur Handlungsspezifik,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Zentral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Reihe: Linguistische Studien 154, Berlin.
-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Uebersetzens, in: Störig (1973), S.38-70.
- Schultze, Brigitte (Hrsg. 1987):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Fallstudien zu ihrer Kulturgeschichte, Berlin (Göttinger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Übersetzungsforschung; Bd.I).
- Snell-Hornby, Mary (1986): Einleitung. Übersetzen, Sprache, Kultur, in: M. Snell-Hornby (Hrsg. 1986): Übersetzungswissenschaft - eine Neuorientierung: zur Integrierung von Theorie und Praxis, Tübingen.
- Snell-Hornby, Mary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 Snell-Hornby, Mary (1991): Translation Studies - Art, Science or Utopia? in: Kitty M. van Leuven-Zwart/Ton Naaijens(hrsg.):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Proceedings of the First James S. Holmes Symposium o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Atlanta.
- Steiner, George (1975):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and Translation, London/Oxford/NewYork.
- Störig, Hans Joachim (Hrsg. 1973):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 Wilss, Wolfram (1977): Übersetzungswissenschaft. Probleme und Methoden, Stuttgart.
- 송 동준: 「독문학 - 장르별 현황과 문제점」 (특집. 개화100년-번역문학의 평가와 반성), 『예술과 비평 11』 (1986 가을).
- 이경수: 「오역의 강물을 누가 막으랴」, 『동서문학』(1986 7월호).